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12. 30.(수) 총 4매(본문 2매, 붙임 2매)	
담당 부서 녹색건축과	담 당 자	·과장 엄정희, 사무관 박덕준, 주무관 최철민 ·☎ (044)201-3768, 4094, 3771	
보 도 일 시	2015년 12월 3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1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

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...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

-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㎡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.
- 녹색건축포털(그린투게더, www.greentogogether.go.kr)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*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,
 - * 에너지평가서 :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(신축단계)과 에너지사용량등급(운영단계)을 표시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유도
 - 주요 부동산 포털(네이버부동산, 부동산114, 부동산테크 등)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(단지 단위 평형별 A·B 등급)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*할 수 있도록 한다.
 - *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51만 세대(4,884단지)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·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세대(411단지)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

《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방법》

$$\text{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출값} = \frac{\text{실제 에너지사용량}}{\text{표준 에너지사용량}} \times 100$$

- 등급 구분 기준은 A~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, 사용량이 적을수록 A, 많을수록 E 사용구간에 가까워짐(A등급의 경우 표준 에너지사용량의 0~50%, B등급의 경우 50~75%의 에너지를 사용)

-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,
 - 금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”며,
 - “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,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덕준 사무관 (☎ 044-201-40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② 부동산 포털 (부동산 시세와 연계)

- (공개대상) 수도권 → 전국 확대,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
- (공개방법) 사용량 등급 데이터셋 제공하여 포털별 자율 배치
- (주요내용) 에너지사용량 등급 A·B, 연간에너지사용량(kWh/m²·년)
- (시세연계 채널) 부동산114, 네이버,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



□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표시 개요

- (표시방법)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, 직관적으로 내용전달이 용이한 원형과 화살표 등으로 구현

<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방법 >

